

자료제공: 2024. 5. 21.(화)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1일 오전 10: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국 디자인정책담당관
(러너스테이션 조성)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러닝 프로그램 운영)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펀스테이션 총괄 및 추가역사 발굴 기획)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손목닥터9988 이벤트)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2133-2700
디자인전략팀장	여은하	2133-2720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2133-2730
생활체육진흥팀	지순영	2133-2735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공공건축2팀장	임종현	2133-7633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2133-7560
스마트헬스케어운영팀장	홍현서	2133-7503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퇴근 후 달리기 어때? 여의나루역 러너들의 성지로... 러너스테이션 문연다

<펀스테이션 1호>

- 21일(화) 오픈,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 펀 스테이션(Fun Station)' 1호
- 역사 내 2개 층 일부 공간 활용, 60여개 물품 보관함, 탈의실·파우더룸, 체험장 조성
- 스트레칭~자세교정 디지털 코칭 러닝코스 랭킹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올해 자양·뚝섬·신당역 시작으로 내년 시청·문정역 등 10개 펀스테이션 추가 조성 계획

- 여의도가 '러너들의 성지'로 더 핫해진다. 5호선 여의나루역이 달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돼 드디어 시민들에게 공개된 것.
-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펀스테이션' 1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을 21일(화) 개관한다고 밝혔다. 기획 단계부터 러닝 전문가와 러닝 크루들의 의견을 반영, 공간과 시설을 구성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작년 1월부터 시는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는 ‘펀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으로 시청역 ‘시청앞 서울광장 아래 숨은 공간 시민탐험대’(9월), 신당역 ‘반스 스테이션 신당’(10월) 행사를 개최해 유휴공간의 새로운 변신 가능성을 보여줬다.

<역사 내 2개 층 일부 공간 활용, 60여개 물품 보관함, 탈의실·파우더룸, 체험장 조성>

- 이번에 문을 여는 ‘러너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 내 2개 층(B1층~M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러너들의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물품보관함 총 58개(M1층 42개, B1층 16개)와 탈의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퇴근길 또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운동화만 있으면 편하고 쉽게 러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전체적으로 검은색 천장에 트랙 숫자를 넣고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크랄로 포인트를 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트랙조명과 러닝 관련 문구 및 패턴 등을 적용해 활동적이면서 세련되게 꾸몄다.
- 우선 B1층에 마련된 ‘러너스 베이스캠프’에는 러닝 전·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탈의실, 파우더룸이 있어 인근 직장인이나 타 지역에서 여의도를 방문한 러너들이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
-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베이스캠프 내)도 설치·운영된다. 이곳에선 스트레칭 및 러닝 자세, 러닝 용어 등 안전한 달리기를 위한 디지털 코칭과 여의나루 인근 러닝코스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미디어보드로 사진 촬영 후 개인 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도 가능하다.

-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마포대교 등 러닝코스별 거리, 특징, 주의사항 및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7979 서울 러닝크루」를 비롯하여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러닝크루들도 소개한다.
- 러닝 관련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일단 베이스캠프 입구에서 신발 소독·살균기를 설치해 운동화를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러닝 컨디션을 올려준다. 신발이 소독되는 동안 전시된 러닝화도 신어볼 수도 있고 인바디 기계로 개인별 신체 상태도 체크 할 수도 있다.
- 6월 말까지는 전문 코치에게 러닝 자세교정도 받을 수 있다. 무동력 트레드밀에 올라 러닝을 시작하면 코칭해 주는 방식으로 6월 30일(평일 오후 4시~9시)까지 별도의 예약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러너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전문 러닝 프로그램도 6월 말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소속 코치가 참여하는 ‘요일별 러닝 클래스’, ‘주말 어린이 러닝 클래스’, ‘개인별 최고 기록 완성 4주 완성 PB(Personal Best) 클래스’ 등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런플’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베이스캠프 입구 기둥에 설치된 ‘러닝코스 랭킹 보드’도 눈길을 끈다. 모바일 앱 ‘런플’ 활성화 후 여의도한강공원 둘레길 8.4^{km} 코스 달리면 랭킹과 개인기록이 등재되는 방식으로 재미는 물론 기록경신을 위해 러너스테이션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 옷을 갈아입은 후 M1층으로 한개층을 올라가면 가로로 긴 미디어보드를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보드에서는 해치와 다양한 러닝캐릭터가 여의도 한강공원의 날씨를 알려주고, 서울시 주최 러닝·생활체육 정보와 러너스테이션 홍보영상도 표출한다.
- M1층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나가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는 러너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계단을 러닝 트랙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해 러닝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색다른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러너스테이션 개관을 기념하여 시민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장 후 첫 주말인 25일(토)~26일(일) 러너스 베이스캠프에서는 룰렛이벤트를 진행해 해치인형과 수건, 러닝복 해치키링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21일(화)부터 다음달 20일(목)까지는 여의도한강공원 둘레길 8.4km를 완주한 시민들에게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도 제공한다.

<올해 자양·뚝섬·신당역 시작으로 내년 시청·문정역 등 10개 편스테이션 추가 조성 계획>

- 편스테이션 조성은 올해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과 신당역(6호선)에 이어 내년 시청역(2호선)과 문정역(8호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 (자양역) 한강변에서의 휴식을 위한 역사 ‘휴식역 자양’으로 조성하여 바쁜 일상 속 쉼과 여가를 선사할 예정이다.
 - (뚝섬역)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함께 디자인하는 다목적 운동공간 ‘헬시 파트너(Healthy Partner) 뚝섬역’으로 조성된다.

- (신당역) 액티비티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상인 및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시청역) 지하 유휴공간에 시민이 안전하게 상주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우선 정비한다.
 - (문정역) 스포츠와 놀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어울림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휴식공간으로 변화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나루역을 달리기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즐겁고 도전하는 러너의 성지로 일상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여의나루역을 시작으로 편스테이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누구나 일상 공간에서 건강하고 힘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1_러닝플랫폼



M1_2번출구(포토존)



B1_러너스 베이스캠프



B1_러너스 베이스캠프



B1_랭킹보드



M1층 전경



M1_미디어보드



M1층 전경



B1_러닝체험 프로그램(트레드밀)